



머리글

이중현 요셉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목적지 설정

‘인천국제공항’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워낙에 길치인지라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귀찮아서 내비게이션 창에 ‘ㅇㅈㅊㅈㅎ’이라고 초성만 입력하니 여러 가지 목적지가 나옵니다. 가장 위에 표시된 목적지를 설정하고 신나게 공항을 향해 달립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길이 좀 이상합니다. 도저히 공항이 나올 수 없는 골목길로 저를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갔지만, 한참을 헤매다 결국 차를 멈추고 다시 확인해보니, 제가 설정한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인천가정교회’였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서 공항을 찾아 헤매던 스스로의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목적지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던 웃픈 저의 경험담입니다.

목적지를 잘 설정하는 것은 우리네 삶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목적지를 설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적지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무엇인가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기복적인 모습, 하느님과 거래하는 모습, 성공 지향 주의적인 신앙관 등등 많은 사람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 하며, 더 부유해지기만을 원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복도 허락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있으며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잘못 설정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신경 쓰고 나아가야 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현세적인 성공과 현실적인 풍요로움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하셨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상 희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목적지, 지향점도 분명 예수님의 것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의 목적지를 어디로 설정하고 있나요?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가 설정한 목적지가 맞는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설정한 목적지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있지 않다면, 다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님처럼 더욱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빛 창간(創刊)을 축하(祝賀)함

총재 추기경 김수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갇혀있는 심정(心情)으로 그들을 기억(記憶) 하십시오. (히브 13.3)

우리 교구(敎區)에 이 복음(福音)의 말씀을 실천(實踐)하기 위(爲)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랑의 모임이 발족(發足)한지 어언(於焉) 오개성상(五個星霜)¹⁾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모임은 참으로 크나큰 일들을 이룩했음을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조그마한 무리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업적을 이룩했고 또 오늘에 와서는 이와 같이 다시 큰 빛이 되고자 빛을 창간(創刊)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인(本人)은 교구장(敎區長)으로서 항상(恒常) 그 아름다움 뜻을 감사히 여기며 찬동하면서도 이렇다 할 도움도 주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生覺)합니다.

다만 지금은 진심(眞心)으로 기도와 존경과 탄복으로써 축하의 뜻을 보내 드립니다.

그 옛날 우리 주(主)님께서는 병자(病者)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으며 갇힌 자(者)들을 해방(解放)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갇힌 자(者)”란 육신(肉身)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자신(自身)의 이기적(利己的)인 협소한 마음에 사로 잡혔을 때 그는 이기주의(利己主義)에 갇혀있는 자(者)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고 권력(權力)에 집착(執着)하는 사람은 권력(權力)에 갇혀있는 사람이며 쾌락(快樂)과 안일(安逸)에 빠져있는 사람은 바로 그 쾌락(快樂)과 안일(安逸)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主)님은 영어의 몸에 있는 사람을 해방(解放)시켜 주는 동시(同時)에 정신적(精神的)으로 갇혀있는 사람까지도 진리(眞理)로서 해방(解放)시켜 주셨습니다.

교도소 후원회가 발간(發刊)하는 이 “빛”은 교도소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精神的)으로 갇혀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비추어 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眞理) 안에서 자유(自由)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眞情) 주(主)님의 빛이 될 것을 축복(祝福)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積極的)으로 이 교도소 후원의 회원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기를 바라오며 그로써 모든 사람이 변화(變化)되기를 빕니다. 이제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會員)들에게 주(主)님의 크신 사랑이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 “빛”이 꺼지는 일 없이 계속 이 어두운 사회(社會)를 비쳐주고 어찌다가 영어의 몸이 된 분들에게 따스한 사랑의 등불이 되기를 사랑의 정으로써 주(主)님의 축복(祝福)을 보내드립니다.

1975년 8월 15일 광복 30주년 겸 성모승천축일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빛의사람들> 소식지가 1975년 8월 <빛>으로 처음 발행되었을 때,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작성하신 창간사입니다.

1) 오개성상(五個星霜): 오 년의 세월



가슴 아픈 2020년, 희망을 바라는 2021년

박종옥 요안나_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대표봉사자

한해가 시작되고 3월이 오면 저는 ‘올해는 어떤 형제님들을 만날까? 그분들께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교리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과 함께 부푼 마음으로 남부구치소로 향합니다.

구치소에 도착하면 정말 친절하신 천주교 담당 교도관님이 저를 맞이해 주십니다.

교도관님과 함께 교리실로 들어가면 5~6명의 형제님이 앉아 계십니다.

매 학기 교리를 시작할 때면 저도 형제님들도 서로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교리를 배우고 간식을 먹고 눈을 마주치다 보면 처음 마주했을 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형제님들과 저 사이에 열은 웃음이 입가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면 교리를 신청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식날 하얀 가운을 입고 신부님 앞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학기 교리를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저를 감싸고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보살핌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리를 가르칠 수 있게 인도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성모님께 간구합니다.

작년 2020년은 남부구치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절하신 교도관님도, 형제님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리를 가르칠 수 없었고, 한 명도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작년 이맘때 교도관님이 전화하셔서 “교리 신청자가 많은데 수용인원 때문에 모두 신청을 못 받아서 미안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코로나 사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사라져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형제님들도 만나고 우리 신부님들도 만나고 봉사자님들도 만나고 친절하신 교도관님도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파라오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파라오는 “큰 집”이라는 뜻이었으나, 이후 왕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왕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이 불경하게 이야기되어 왕을 뜻하면서 ‘왕궁’을 언급했을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여러 신들 중의 하나인 호루스가 세상에 내려왔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파라오는 신이며 인간이었고, 또 사람과 신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제였습니다. 그러한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파격적입니다. 자신과 다른 종족입니다. 이주민이었고 종교도 달랐습니다. 궁궐 안의 신하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호 대장의 종살이를 하다가 그의 아내 성추행 혹은 성폭행 혐의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러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창세 41,15)

요셉은 거침이 없습니다.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파라오 앞에서 다른 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창세 41,16) 파라오의 꿈을 듣고서 그 해석을 할 때조차,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임을 누누이 언급합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41,25)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파라오께 아뢴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41,28)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되풀이하여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뜻하십니다.”(41,32)

형제들의 파멸로 외국에 팔려와 종살이했고 그 종살이 중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처지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강한 신앙심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신앙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수인의 신분입니다. 감옥에 같이 있던 제빵 시종장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파라오 앞에서 하느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돌릴 수 있다, 자신이 꿈 해몽을 수년간 해왔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현작 시종장 이야기도 들어보시지 않았느냐?’

등으로 남들 흔히 하듯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 자신의 능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눈물 섞어 가석방을 노리면서 하소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가석방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파라오에게는 건방지게 보일 수 있는 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더욱이 꿈 해석에 더불어 대풍에 수확의 오분의 일을 받아들이고 갈무리해두라고 나라의 정책까지 훈수를 둡니다..

반대로 파라오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이주민에 이교도이고 종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잡범의 죄인이었습니다. 자신 앞에서 이교도의 신을 이야기하면서 꿈 해몽을 하라했더니 나라의 정책을 논합니다. 파라오 옆의 대신들도 기가 찼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가려내어 이집트 땅을 그의 손 아래 두라’(41,33)는 말은 자신들이 슬기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다는 말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엄벌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요셉에게 ‘하느님의 영’(41,38)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내 집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오.”(41,39-40)

다른 종교, 다른 신의 이름, 다른 믿음이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합니다. 그의 신분이 낮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감옥에 갇혔던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의 말의 진리를 덮지 않습니다. 너는 출소자 주체에 무얼 떠벌리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그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줍니다.

이집트가 칠 년간의 큰 흉년 속에서도 그 재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서 미리 대비하기도 했고 또 요셉이 이집트를 잘 돌본 것도 있었습니다만, 감옥에 갇혀 있던 이민족 요셉이 파라오에게 나갈 수 있었던 시스템과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고민을 털어놓고 또 현명한 대답을 귀담아들어 반영할 수 있었던 파라오의 현명한 선택과 안목 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출소자가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과거나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그 능력을 펼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출신학교, 집안, 옷차림, 차량, 과거 이력 등을 보지 않고 진정성을 보면서 ‘하느님의 영’을 발견하고 있나요?

뚜벅 뚜벅 걸어온 출소자를 위한 '기쁨과희망은행'의 12년



김영신 베네딕도 /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장

지난 12월 13일 추기경님 집전으로 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 기념미사가 안타깝게도 비대면 방송 미사로 이루어졌다. 박봉을 털어 옥중 수발을 해온 교도관의 봉사, 여러신 몸으로 사형수의 수발과 사후수습에 반평생을 바친 수녀님, 짬뽕 돈을 모아 재소자의 옥중 수발과 영성 지도를 보조해온 봉사자들의 숨은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25장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라는 간혀있는 자에 대한 돌봄을 몸소 실천하신 분들로 회고 되고, 수상의 기쁨보다는 코로나로 멈추어버린 시간, 지금 이 순간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재소자들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해온 담담함이 저절로 느껴지는 따뜻함이다.

교정 사목에서 하는 재소자 지원사업과 함께 출소자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기쁨과희망은행’사업도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지나 13년을 맞이하고 있다. ‘기쁨과 희망은행’사업은 출소자들의 자활을 돕고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자들이 창업을 희망할 때 창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출범 당시부터 일반인도 하기 어렵다는 창업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온 출소자들이 가능할까?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부터 당시로는 파격적인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무리한 사업이고, 지속할 수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던 사업이었고, 실제로 같이 시작했던 종교단체, 사회단체의 미소금융 사업은 속속 폐업했으나 유일하게 남은 교정 사목의 출소자 창업지원 사업은 출소자의 마지막 보루임은 물론 창업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자체 창업보육시설까지 설치하여 12년 동안 출소자들이 잠시나마 목을 축이고 갈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쁨과희망은행 사업 초기, 대출 약정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가족을 초청하여 사업의 다짐과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출자와 함께 온 고등학생 딸의 얘기이다.

‘어느 날 집에 오니 아빠가 책을 들고 공부를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한 번도 책을 들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빤 교육을 통해 돈을 받아 사업을 하여 같이 살 수 있다고 했다. 아빠가 또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빠의 공부는 계속되고 어느 날은 엄마와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상의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다. 한 달 후 아빠의 자랑스러운 저녁 모임에 멋모르고 참석한 자리에서 아빠의 다짐과 엄마의 미소를 보며 아빠가 무언가 자랑스러운 것을 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과 용기를 받았다. 눈물과 함께 수줍은 미소와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소녀의 다짐’에서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코로나로 멈추어 버린 시간, 한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지난 12년간 조금씩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일시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안녕하세요,

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필리핀에 있는 샌디(SANDY)입니다,

남편이 편지에 이메일을 주었어요,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우리 가족을 계속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회에서 보내주시는 모든 지원금은 우리 아기를 키우는데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절대로 위원회에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헛되이 쓰지 않을 거예요,

신부님이 계신 위원회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로 쓰이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신부님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직원 모두에게요,

메리 크리스마스와 내년에도 행복하세요,

언젠가 그곳에 가서 감사인사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실수했는데도 그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그를 변화시켜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기에게 항상 좋은 엄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가 출소하면 우리 가족이 한번 위원회를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매달 보내주시는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 아기는 9개월 되었어요,

남자 아이예요,

따뜻한 포옹을 보냅니다,

착한 마음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필리핀에서 샌디(SANDY) 드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는 형제님의 가족, 아내분이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제60차 정기총회 및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3월 8일 월요일 오전 10:00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0차 정기총회
오전 11:15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3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3월 월례미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올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인터넷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 이레우리밀**

※ 구입문의 :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 ▶ 수제청국장식빵 ₩5,000
- ▶ 수제상투과자 ₩5,000
- ▶ 수제단팥빵 3개 ₩5,000
- ▶ 수제통밀식빵 ₩5,000
- ▶ 수제엄마빵 5개 ₩10,000
- ▶ 수제소보루빵 3개 ₩5,000
- ▶ 우리밀호두과자 30개 ₩10,000
- ▶ 엄마찰보리빵 20개 ₩10,000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2/15~1/13)

2020년 12월~2021년 1월에는 김광자 엘리사벳, 김순례 올리아, 김영운 엘리사벳, 김재연 엘리사벳, 김화녀 막달레나, 남정순 안젤라, 박선래 루시아, 서순희 마리아, 손세형 사도요한, 오인환 야고보, 이보윤 비비안나, 이상원 미카엘라, 장하리 소화데레사, 한승진 루시아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곽윤후 요한바오로2세, 김정희 안나, 손정모 로사, 이순자, 조태희, 최계복, 하중숙, 홍진주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